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7.(목) 배포즉시 배포 2023. 9. 7.(목)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 필리핀과 교역 자유화 -

- 한국산 자동차, 친환경 차 무관세 수출 -

- 아세안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 완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 7.(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21년 10월 양허 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여러 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개요>

■ (일시/장소) '23. 9. 7.(목) 18:00 (현지시각)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랭햄 호텔

■ (서명) (우리 측)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필리핀 측) 파스쿠알 통상산업부장관

■ (내용)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및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정식 서명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을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06. 3. 발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5. 12. 발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22. 12. 발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3. 1. 발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23. 9. 정식 서명)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21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다.

* 자유화율: (품목 수 기준) 한 94.8%,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필 97.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 필리핀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2022년) : 36.6만 대(전년 대비 28% 증가)
  - 브랜드별 순위 : ①도요타 ②미쓰비시 ③포드 ④르노-닛산 ⑤스즈키 … ⑨현대차·기아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앞으로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 필리핀 수입 관세율
  - 승용차 : (기본 관세율) 30%, (일본) 20%, (중국) 5%, (한국) 5%→0%
  - 화물차 : (기본 관세율) 30%, (일본) 0%, (중국) 5%, (한국) 5%→0%
  - 자동차 부품 : (기본 관세율) 3~30%, (일본) 0%, (중국) 3~5%, (한국) 3~30%→0%
  - 친환경 차 : (기본 관세율) 30%, (일본) 20%, (중국) 5%, (한국) 5%→0%

그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우리 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첫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용)

양국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보교환,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 포럼, 공동연구·개발 등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FTA 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830)
		담당자	주무관	조희경 (044-203-58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한-필리핀 교역 투자현황**

1. 교 역

□ **(교역규모)** '22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175억불로 한국의 제17위 교역대상국 (수출 123억불(11위), 수입 52억불(29위))

* ASEAN 국가중 제5위 교역국('22,억불): ①베트남 877, ②싱가폴 305, ③말레이시아 267

○ 코로나19 이후 양국 교역량이 감소했었으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5억불을 달성

<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전년동기대비 %,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8,318 (△17.1)	7,278 (△12.5)	10,594 (45.5)	12,037 (13.6)	8,363 (△30.5)	7,127 (△14.8)	9,656 (35.5)	12,314 (27.5)
수 입	3,252 (△2.4)	3,229 (△0.7)	3,702 (14.7)	3,569 (△3.6)	3,656 (2.4)	3,086 (△15.6)	3,894 (26.2)	5,177 (32.9)
무역수지	5,066	4,049	6,892	8,468	4,707	4,041	5,762	7,128
총교역액	11,570	10,507	14,296	15,606	12,019	10,213	13,550	17,491

□ **(수출입동향)** '22년 對필리핀 수출 123억불(27.5%증가), 수입 52억불(32.9%증가) 기록

○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반도체, 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이 對필리핀 수출의 71%를 차지

* 주요 수출증감 품목('22년, 전년대비) : 석유제품(169.2%↑), 반도체(1.4%↓), 동제품(13.2%↓)

○ 수입은 아웃소싱후 재수입되는 산업용 전기기기와 반도체, 동광, 석탄 등 품목이 56%를 차지

< 한·필리핀 품목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출('22년)			수입('22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4,506	169.2	산업용 전기기기	1,312	54.6
2	반도체	3,774	△1.4	반도체	1,020	9.9
3	동제품	307	△13.2	동광	296	326.1
4	무선통신기기	208	294.5	석탄	284	961.8
	총수출액	12,314	-	총수입액	5,177	-

2. 투 자

□ **(투자규모)** ‘21년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69억불로 '21년 필리핀은 한국의 제24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6위)

* 對ASEAN 투자순위('21년, 억불): ① 베트남 29 ② 인니 24 ③ 싱가폴 19

* 對ASEAN 투자순위('92~'21년누계, 억불): ① 베트남 467 ② 싱가폴 420 ③인니 267

○ ‘21년 기준 필리핀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2억불 규모

< 연도별 한-필리핀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 계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474 (259)	125 (209)	217 (181)	183 (208)	586 (216)	215 (207)	254 (185)	139 (166)	197 (114)	<'90~'21> 6,912 (5,595)
필리핀의 對한국 투자	102 (9)	5.87 (11)	187 (12)	3.77 (7)	511 (5)	0.88 (7)	0.95 (5)	9.4 (7)	130 (3)	<'99~'21> 1,209 (195)

□ **(투자현황)** 對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건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

○ ’21년 누적기준 업종별 투자비중(신고기준)은 제조업(56.1%), 건설업(9.4%), 부동산업(9.1%), 숙박·음식점업(5.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4.5%)

○ 한국의 주요 투자 기업들은 삼성전자(전자·판매), 삼성전기(칩저항기·콘덴서), 롯데그룹(식음료), SFA반도체(반도체), LG전자(전자·생산) 등

참고 우리나라 FTA 현황

2023.08 기준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발효 (59개국 21건)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09.07	2010.10.06.	2011.05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0.08	2011.03.21.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24.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	2010.04	2012.03	2012.08.01.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2.26. (서비스·투자 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투자 협정)	
	호주	2009.05	2013.12	2014.04.08.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22.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4.11	2015.06.01.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22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2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05.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22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21.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6.11	2018.02.21.	2019.08	2021.03.01. 전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6	2019.08.22.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5]	2012.11	2019.11	2020.11.15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12.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12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2012.03	2019.10	2020.12.18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20.0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10.26. 협상타결 선언 2023.9.7. 정식서명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협상 진행	GCC[6)]	2007~2023.02 7차례 협상 개최 2021.01 협상재개 합의 2022.03~2023.02 4차~7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선언 2021.04~2021.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MERCOSUR[7)]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22.07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 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22.11 9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3.5 7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 개시, 여건 조성	몽골	2023.3 공청회 개최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조지아	2023.3 공청회 개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영국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이집트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PA[8)]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중남미 신흥 시장

6)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7)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8)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